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Scripture driven church)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느헤미야 8-12)

이번 주부터 앞으로 5주간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인 S.H.I.N.E 비전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해 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디아스포라”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 모두가 쉽게 기억하고, 기도하며, 추구해 나가기 위해 S.H.I.N.E, 다섯가지 비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S.H.I.N.E 비전은 우리 교회를 두고 제가 기도하며 담임 목회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and the glory of the Lord has risen upon you.” 라는 이사야 60:1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 꿈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중에 임하는 꿈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도 한사람, 한사람에게 임하는 꿈

하나님께서서는 바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한인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도시를 살아가는 열방을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빛을 전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찬란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비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 드려야 할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첫번째 비전은 S로 시작합니다.

Scripture driven church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국가와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포로들은 열악한 상황과 주변의 대적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의 대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안전한 성 안에 정착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 일을 마친 백성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1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 앞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만한 사람은 다 나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은 모두 이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읽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7절). 이 레위 사람들은 중간 중간 백성들 가운데 서서 방금 에스라 제사장이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번역하고 설명하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이처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은 똑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두 번의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8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9절)

말씀을 듣고 깨달자 백성들이 모두 다 울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깨달자 그들은 큰 슬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못했을 때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지 알지 못해 슬퍼할 이유도, 두려워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단 한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레위인들을 통해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 얼마나 이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깨달음은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고, 크게 슬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깨닫게 된 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워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는지를 자각하게 해 줍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통곡하게 합니다.

만약 아직 우리 중에 이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죄에 대한 슬픔과 통곡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해 달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냉랭하게 마음이 식어있다면 바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진실하며, 너무나 명확하여 그 앞에 우리 자신을 감출 수 없습니다.

Scripture driven life, Scripture driven church의 비전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우리를 냉랭한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1. 돌아가라
2.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셔라
3. 가난해서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애통과 슬픔으로 인도하지만, 거기서 영원히 머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참 슬픔 이후에는 진정한 기쁨과 축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기쁨 가운데 음식을 준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온 공동체가 함께 축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이처럼 경축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더 이상 슬픔과 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매주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환희와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의 자리가 됩니다.

예배 중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그 앞에서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추던 그런 참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되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Scripture driven church,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듣고 배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슬퍼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기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초대 교회와 같은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오직 느헤미야의 공동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듯이, 우리도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귀기울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1.3.2016 주일 설교, 김현철 목사)

Cell Bible Study

1. “성령 충만함으로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우리는 S.H.I.N.E 비전을 함께 추구하려 합니다.

다음 빈 칸을 채워보며 이 비전을 확인해 보세요.

Scripture driven church

하나님의 _____ 대로 살아가는 교회

Honoring God through wholehearted worship

전심으로 _____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Interdependence of the congregations

온 회중이 _____ 하는 교회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 of faith

믿음의 _____ 를 길러내는 교회

Engaging communities globally with the Gospel

복음으로 글로벌(global)하게 _____ 에 다가가는 교회

2.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삼아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린 것은 방해하는 적진 한 가운데 있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의 대업을 완수한 후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정착하게 됩니다. 성벽 완공 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8:1)

3.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이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처럼 슬퍼하며 두려워하게 하였습니까? (느헤미야 8:8-9)

5.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였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이와 같은 슬픔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6.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기쁨의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당신은 주일 예배, 셀 모임, 새벽 기도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참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기쁨이 부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셀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